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본 복음서 해석

—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

권영주*

1. 들어가는 말

버릿지(R. Burridge)의 저서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eco-Roman Biography*의 출판 이후로 복음서의 장르가 그레코-로만 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¹⁾ 그동안 학자

*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answer.is@gmail.com. 본 논문은 2021년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복음서 장르가 그레코-로만 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복음서 장르에 관한 간략한 연구사를 위해서는 Y. Kwon, “Charting the (Un)Charted: Gospels as Ancient Biographies and Their (Un)Explored Implications”, Craig S. Keener and Edward T. Wright, eds., *Biographies and Jesus: What Does It Mean for the Gospels to Be Biographies?* (Lexington: Emeth, 2016), 60-65를 보라. 더 많은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D. Frickenschmidt, *Evangelium Als Biographie: Die Vier Evangelien Im Rahmen Antiker Erzählkunst*, TANZ 22 (Tübingen: Francke, 1997); M. Ytterbrink, *The Third Gospel for the First Time: Luke within the Context of Ancient Biography* (Lund: Lund University – Centrum för teologi och religionsvetenskap, 2004); C. Bryan, *A Preface to Ma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J. Fitzgerald, “The Ancient Lives of Aristotle and the Modern Debate about the Genre of the Gospels”, *ResQ* 36 (1994), 209-221; G. N. Stanton, *The Gospels and Jesu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4-18; J. D. G. Dunn, *Jesus Rememb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184-186; M. Hengel, “Eye-Witness Memory and the Writing of the Gospels: Form Criticism, Community Tradi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Authors”, Markus Bockmuehl and Donald A. Hagner, eds., *The Written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72; C. S. Keener, *The Gospel of Matthew: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16-24; C. S.

들이 ‘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씨름해 왔다면, 이제는 ‘복음서의 장르가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차례가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복음서의 장르가 그레코-로만 전기라면 그것이 복음서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여 마가복음 5장의 새로운 읽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그레코-로만 전기의 중요한 장르적 특성을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잘 살려서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앞선 장들의 주요한 논의들을 요약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2.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

앞서 언급한 버릿지의 저서는 복음서 장르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저서가 남긴 중요한 통찰 중에 한 가지는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이다. 버릿지는 복음서 저작 이전에 기록된 5개의 그레코-로만 전기 샘플과 복음서 저작 이후에 기록된 5개의 그레코-로만 전기 샘플들을 비교 대조한 뒤, 전기의 주요한 장르적 특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다.²⁾ 전기가 다른 문학 장르와 비교했을 때 지니는 주요한 장르적 특성은 다름 아닌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라는 것이다.

다른 문학 장르들, 예를 들어 역사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을 다른

Keener, *The Historical Jesus of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2009), 73-84; C. S. Kee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vol. 1, 2 vols. (Peabody: Hendrickson, 2010), 11-34; C. S. Keener, “Assumptions in Historical-Jesus Research: Using Ancient Biographies and Disciples’ Traditioning as a Control”, *JSHJ* 9 (2011), 30-39; C. S. Keener, “Reading the Gospels as Biographies of a Sage”, *BurH* 47 (2011), 59-61을 보라. 위의 문헌 정보는 필자의 이전 논문 Y. Kwon, “Charting the (Un)Charted”, 59-60, n. 3에서 가져온 것이다. 국내에서 복음서 장르와 해석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도외시되어 왔다. 그레코-로만 전기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해석한 국내 연구는 부재하고, 복음서를 그리스 비극의 관점에 해석한 연구가 있었다. 박노식, “복음서와 드라마 - 마가복음의 비극적 요소들”, 「신약논단」 14 (2007), 265-300; 박노식, “마가복음의 그리스 비극적 요소 - 합창의 신분과 기능”, 「신약논단」 18 (2011), 667-716; 박노식, “The Gospel of Mark as Christian Biographical Tragedy”, 「신약연구」 11:2 (2012), 1-29.

2) R.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25th Anniversary ed.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8), 131.

다. 역사에도 복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전기에도 복수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전기가 역사(그리고 다른 문학 장르들)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중심인물, 즉 주인공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역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서술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서 A라는 인물에 대한 서술이 일시적으로 길어질 수는 있지만, 사건이 전환되면 A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이 때문에 역사서 전체에 걸쳐 한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전기는 주인공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주인공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고, 다양한 사건들이 묘사되는 것도 주인공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는 책 전체에 걸쳐 주인공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등장한다. 버릿지는 10개의 그레코-로만 전기들의 주어의 빈도수를 일일이 조사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버릿지는 이러한 장르적 특성이 복음서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기의 장르적 특성이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라면, 복음서 독자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다.³⁾ 필자는 버릿지의 이러한 주장을 마가복음 1:16-20과 2:1-3:6에 적용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안한 바 있다.⁴⁾

본 논문은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라는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더하여 또 다른 장르적 특성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비교/대조이다. 물론 비교/대조는 다른 문학 장르에서도 사용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비교/대조는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라는 장르적 특성만큼 다른 장르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장르적 특성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기 작가들이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교/대조의 방법을 종종 사용한다는 점이다.⁵⁾

비교/대조가 가장 명시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플루타르코스(Plutarch)의 『영웅전』(*Parallel Lives*)이다. 『영웅전』에서 플루타르코스는 한 그리스인의 생애와 한 로마인의 생애를 각각 서술한 뒤 이 두 명의 인물들을 비교/대조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미덕과 반면교사를 삼을

3) R. A. Burrige, *What Are the Gospels?*, 248-250.

4)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마가복음 1:16-20절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9 (2020), 46-76;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마가복음 2:1-3:6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4 (2020), 201-230.

5) H. K. Bond, *The First Biography of Jesus: Genre and Meaning in Mark'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20), 173.

수 있는 악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영웅전』은 18쌍의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생애를 기록한다.

비교/대조의 방식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면, 다른 전기들에서는 보다 국지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모세의 생애』(*The Life of Moses*)에서 필로(Philo)는 모세와 다른 인물들을 비교/대조하면서 모세의 우월성을 증명한다(예, 1:21; 1:24).⁶⁾ 이와 유사하게 수에토니우스(Suetonius)는 그의 전기 『갈바』(*Galba*)에서 주인공 갈바가 그의 전임자 가이틀리쿠스(Gaetulicus)에 비해 장군으로서의 수행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을 강조한다(*Galba* 6.3). 하지만 비교/대조의 방식이 주인공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등장인물들을 서로 비교/대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전기 『오토』(*Otho*)에서 주인공 오토의 군사들이 상대편 장군 스푸리나(Spurina)의 군사들에 비해 용맹함과 전투 능력이 훨씬 떨어짐을 서술한다(*Otho* 4.1-2). 이와 같은 예는 더 많이 제시될 수 있지만 요점은 동일하다. 전기 작가들은 비교/대조의 방식을 종종 사용하면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됃됨이를 묘사하고 그들의 미덕과 악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앞선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그레코-로만 전기의 주요한 두 가지 장르적 특성은 (1)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2) 비교/대조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여 마가복음 5장의 두 가지 이야기, 즉 거라사 광인 이야기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3. 장르적 특성에 충실한 복음서 독해: 마가복음 5장 다시 읽기

3.1. 마가복음 5장의 공간적 배경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1-20절)가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고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21-43절)가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 동편(5:1; 참조 4:35), 즉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 서편(5:21), 즉 유대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⁷⁾

6) H. K. Bond, *The First Biography*, 175.

7)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이는 각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문에 명시되었듯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⁸⁾ 또한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부를 때 사용한 명칭 역시 이방 지역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다. ‘지극히 높으신’(ὕψιστος; the most high)이라는 표현은 그리스 종교에서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⁹⁾ ‘지극히 높으신’이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도 다스리신다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신 32:8; 단 4:17).¹⁰⁾ 마지막으로, 예수가 거라사 광인을 고친 후 보이신 반응을 고려할 때도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우세한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의 명성과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알릴 것을 구체적으로 명한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5:18-20). 왜 예수는 소위 ‘메시아 비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을까?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승리자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지만, 메시아사상에 대해 둔감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¹¹⁾

반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야이로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고, 혈루증은 유대 정결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정환 병이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집 사람들이 보인 반응(“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은 전형적인 유대식 장례

Eerdmans, 2002), 233; L. W. 허타도, 『마가복음』, 이여진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20), 124.

8) 왜지 때가 바다에서 몰살했다는 마가의 설명(13절)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실제로 거라사 지역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로 제시된 지역들 역시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 위치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 R. Donahue, *The Gospel of Mark*, SP 2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2), 163;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1991), 142를 보라.

9) J. Marcus,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 (New York: Doubleday, 2000), 343; Kim Huat Tan, *Mark*, NCCS (Eugene: Cascade Books, 2015), 66.

10) J. Marcus, *Mark 1-8*, 344.

11)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1), 179; 박윤만, 『마가복음: 길 위의 예수, 그가 전한 복음』 (용인: 킹덤북스, 2017), 389.

의 모습이다.¹²⁾ 또한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인 ‘달리다 굶’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였다.

비록 그레코-로만 전기는 주로 인물 간의 비교/대조를 하지만,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장소적 배경의 비교/대조는 다방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방 지역의 거라사 광인 이야기와 유대인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동일한 인물, 바로 예수다. 예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지역적, 민족적 경계를 넘나들며 말과 행동을 통해 기존의 신념 체계와 행동 양식을 전복시킨다. 이제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두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 차례다.

3.2. 거라사 광인 이야기(5:1-20)

마가복음은 속도감 있는 전개로 잘 알려진 복음서다. 그리스어 εὐθύς는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 42번 등장한다.¹³⁾ 예수는 쉬지 않고 행동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빠르다. 예수는 부지런히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건의 장면 전환이 신속하다. 속도감 있는 전개 때문에 사건과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간단한 편이다.¹⁴⁾ 그런 면에서 보자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묘사는 매우 상세하다. 이는 평행본문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 도드라진다.

마 8:28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눅 8:27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막 5:2-5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뿔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

12)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166-167.

13) M. A. 포웰, 『현대인을 위한 신약개론: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읽기』, 이승호 역 (서울: CLC, 2014), 144.

14) S. Miller, “Women Characters in Mark’s Gospel”, Christopher W. Skinner, Matthew Ryan Hauge, and Mark Goodacre, ed., *Character Studies and the Gospel of Mark*, LNTS 483 (New York: Bloomsbury, 2014), 176.

량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의 저자가 평소와 달리 구구절절한 설명을 첨가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봐야 한다. 평행본문과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설명은 거라사 광인의 상태가 심각해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는 거라사 광인은 인간의 교양과 품위를 상실한 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향을 내지르고 자해를 서슴지 않는다.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설명 중 결박의 이미지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ἰσχύω)이 없는지라”라는 표현을 예수에 대한 이전 묘사들과 결부시켜 읽으면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된다. 결박의 이미지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혐의에 대하여 예수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3:27)고 대답한다. 문맥상 여기서 “강한 자”(ὁ ἰσχυρός)는 사탄(귀신)을 가리키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예수를 지칭한다.¹⁵⁾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간단히 말해 ‘더 강한 자’(ὁ ἰσχυρότερός)인데, ὁ ἰσχυρότερός라는 표현은 침례요한/세례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것(1:7; 『개역개정』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번역함)이다.¹⁶⁾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거라사 광인은 아무도 결박할 수 없는 강한(ἰσχύω) 자이다. 하지만 바알세불 논쟁에 따르면 예수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 또한 침례요한/세례요한에 의하면 예수는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자인 거라사 광인(속에 있는 귀신)과 싸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얼핏 보면 거라사 광인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부 내용들이 실상은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잘 반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은 결국 주인공의 인격과 정체성을 조명하고 부각시키는 데 종종 사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거라사 광인의 세부 묘사에 대한 위의 해석은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라고 할 수

15)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116.

16)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102.

있다.

거라사 광인 이야기에서 전기의 주인공인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또 다른 단서는 광인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와 나눈 대화에서 나타난다(18-20절).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거라사 광인은 예수에게 “함께 있기를” 요청한다. 마가복음 3:14에 따르면, 함께 있는 행위는 예수가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였다.¹⁷⁾ 달리 말하자면, 거라사 광인은 예수에게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예수가 이러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점이다(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19절)고 명하신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20절)했다. 거라사 광인의 후속 행동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인지 거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거역 쪽에 무게를 실는 입장은 둘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들에 집중한다. 예수는 “네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명했는데 거라사 광인은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집이 ‘비밀의 장소’로 종종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브레데(W. Wrede)를 위시한 일부 학자들은 가족에게 알리라고 한 예수의 명령은 일종의 메시아 비밀이었다고 주장한다.¹⁸⁾ 큰 일을 알리는 것을 완전히 금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알리라고 한 것은 일종의 소문 억제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또한 다른 학자들은 나병 환자와의 유사성을 상기시키면서 거라사 광인이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예수는 제사장에게만 가서 깨끗함을 입증하라고 명했

17) R. A. Guelich,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1989), 284;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rk*,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273; R. A. Culpepper, *Mark*,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7), 170.

18) J. Marcus, *Mark 1-8*, 346. 마커스(J. Marcus)는 집이 비밀의 장소로 기능하는 구절들을 다 음과 같이 제공한다. 막 5:38-43; 7:17, 24; 8:26; 9:28, 33?; 10:10. 유사한 견해로는 G. Theissen, *The Miracle Stories of the Early Christian Tradition* (Minneapolis: Fortress, 1983), 146-147; M. E. Boring, *Mark: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2), 154.

19) J. F. Williams, *Other Followers of Jesus: Minor Characters as Major Figures in Mark's Gospel*, JSNTSup 102 (Sheffield: JSOT Press, 1994), 111-112.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네 가족에게’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문은 πρὸς τοὺς σοὺς인데 이는 직역하자면 ‘너의 것들’ 혹은 ‘너의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다. ‘너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만이 아닌,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BDAG은 이러한 용례로 Josephus, *Ant.* 7, 218; 8, 54를 제시한다.

20) A. Y. Collins, *Mark*, 273.

지만 나병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처럼, 거라사 광인 역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거들이 나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 먼저, 집은 비밀의 장소일 때도 있지만 공개적인 장소로 기능하기도 한다.²¹⁾ 마가복음 1:29-34에 따르면, 예수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공개적인 치유를 행하고 그로 인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일 정도로 집 주변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게 된다. 중풍병자를 고친 가버나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막 2:1-2). 예수가 레위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현장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는 그들만의 은밀한 회동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인 모임이었다(막 2:15-16).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병환자의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나병환자에게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는 분명한 지시가 있었지만 거라사 광인에게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메시아 비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거라사 광인이 데가볼리에 소식을 전한 것을 예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역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예수가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고 했는데 거라사 광인은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렸다는 점이다. 거역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주”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²⁾ 예수가 자신을 “주”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는 거라사 광인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알리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는, 마치 다른 인물을 염두에 둔 듯이,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알리라고 말했다. “주”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례는 마가복음에서도 발견되고(12:29; 13:20),²³⁾ 실제로 후대 저자인 누가는 평행본문에서 ‘주’를 ‘하나님’으로 대체한다(눅 8: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²⁴⁾ 하지만 설령 마가복음 5:19의 주가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21) 다음의 성경구절들은 J. Marcus, *Mark 1-8*, 346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마커스는 각 구절에 대한 주석과 설명을 달지 않는다.

22) B. J. Malina and R. L. Rohrbaug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2nd ed. (Minneapolis: Fortress, 2008), 166; M. L. 스트라우스,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 정옥배역 (서울: 디모데, 2016), 250.

23) J. R. Donahue, *The Gospel of Mark*, 168.

24)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145.

도 거라사 광인의 이후 발언이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드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거라사 광인의 발언은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예수가 행하신 일로 변경한 것의 주체가 거라사 광인인지, 저자 마가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²⁵⁾ 그것을 확실하게 알 길은 없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거라사 광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마가의 편집적 코멘트에서 기원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한 일을 예수가 한 일로 변경한 것은 분명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의 요지는 예수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명칭, 속성, 행위를 예수에게 적용시키는 형태의 신학적 해석은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대표적인 예, 12:37; 참조 1:29-31; 2:19-20; 4:39; 6:48).

거라사 광인의 변경 사항들을 종합해 보자면, 그는 예수의 말씀을 단순히 거역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한 뒤 확장 해석/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인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게 된 것의 배후에는 분명 하나님이 있다. 하지만 거라사 광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과 권위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오롯이 경험된다(그래서 거라사 광인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한다).²⁶⁾ 때문에 거라사 광인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즉 “네가볼리에”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또 다른 해석의 지점은 예수와 로마 제국 간의 비교/대조이다. 이러한 비교/대조는 현대 독자들에게 그리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차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원독자들에게 이러한 비교/대조가 훨씬 더 생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로마 제국적 요소는 무엇일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일차 독자로 상정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귀신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9에서는 귀신들의 이름이 ‘군대’(λεγιών)로 특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λεγιών은 로마 군대 중 가장 큰 단위로서 6천 명 정도의 군단 병력을 가리킨다.²⁷⁾ 더불어, λεγιών으로 명명되는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거라

25) M. E. Boring, *Mark*, 154.

26)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145-146.

27) D. E. Garland,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204; C. C. Black, *Mark*, ANTC (Nashville: Abingdon Press, 2011), 136; D. Bock, *Mark*, N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190.

사 광인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긴 호흡으로 묘사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필자는 이러한 상세 내용이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논증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상세 내용의 또 다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λεγιών*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수탈로 인해 피지배자들이 겪는 고통과 수모를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적 요소는 또 다른 곳에도 숨어 있다. 마가복음 5:13은 군대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 바다에 몰살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돼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문양(文樣)이었다는 것이다.²⁸⁾ 돼지가 바다에 몰살한다는 것은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 시달리던 민중들의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본문의 로마 제국적 요소들의 누적된 총합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로마의 황제이자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가이사는 로마가 진정한 평화(*Pax Romana*)를 누리고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고발하는 것은, 로마의 피지배자들은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고 인간의 품위와 교양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이 파멸되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로마는 평화의 제국이 아니고 가이사는 진정한 왕도 신의 아들도 아니다.

반면, 예수는 *λεγιών*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분이다. 또한 죽음과 부정으로 가득한 무덤에 있던 이를 평화의 공간인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다. 그는 *λεγιών*으로 대표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7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다.²⁹⁾ 간단히 말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화의 왕국이다.

3.3.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이야기(5:21-43)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 비해 인물간의 비교/대조가 훨씬 더 뚜렷하다. 거라사 광인 이야기에서 예수와 로마 제국 간에 비교/대조가 함축적이었다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여러 면에서 의도적인 비교/대조를 나타낸다. 두 인물 간의 비교/대조를 자세히 살펴

28) J. Marcus, *Mark 1-8*, 351.

29) 이러한 패턴은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에서도 나타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15:39).

보기 전에 평행본문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개관할 필요가 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한다. 이 중에서 마가복음 본문이 가장 길다.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묘사가 다른 두 복음서에 비해 길고 자세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짧고 속도감 있는 전개로 유명한 마가복음이 어떤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을 때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일단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서술이 가장 짧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두 복음서 모두 샌드위치 구조(A-B-A')로 이루어져 있다. ‘야이로의 이야기’(A)로 시작해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B)가 중간에 삽입된 뒤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A)로 종료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유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두 복음서가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에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마태복음은 야이로가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딸이 이미 죽은 상태라고 묘사한다. 반면, 마가복음은 야이로가 예수를 처음 찾아왔을 때 딸은 아직 살아 있었는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를 위해 시간이 소용되는 동안 딸이 죽은 것처럼 서술한다.

마 9:18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막 5:22-23, 35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 아직 예수께서 [혈루증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보다 엄격한 현대의 역사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사건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역사적 오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대 전기의 작법(compositional techniques)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불일치는 허용되는 관행이었다.³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마가가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비교/대조를 극대화시키고 그로 인해 메시지를 보다 확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30) 권영주, “복음서의 상이성은 왜 나타나는가? - 고대전기 작가들의 작법 분석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7 (2018), 455-490.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지만, 마가복음에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혈루증 여인이 증간에 끼어뚫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묘사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보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것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비교/대조해 보면 예수의 이러한 선택에는 다분한 의도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분 격차는 막대한 것이었다. 여성의 지위가 지역과 종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두 인물 모두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마가복음에서 회당장의 이름이 나와 있고 혈루증 여인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는다.³¹⁾ 말하자면,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만한 사람이었고, 혈루증 여인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도 될 만큼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이었다.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두 인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야이로의 직업이 회당장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을 것이다.³²⁾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의사를 찾아다닐 만큼 한때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으나 이제는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한 상태였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막 5:26). 마태복음에는 혈루증 여인이 의사를 찾아다닌 것도, 재산을 허비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누가복음에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나오지만 재산을 모두 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³³⁾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부연 설명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욱 대조시킨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입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두 인물은 뚜렷이 구별된다.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야이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혈루증 여인은 유대 정결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정한 사람이었다. 레위기 15장은 일시적 혹은 만성적 유출병을 모두 부정한 상태로 규정한다. 특히 월경 기간에 있는 여성은 부정하고 그가 앉고 누운 자리 또한 모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레 15:21-22)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³⁴⁾ 월경 기간에 있는 여인은 일시적인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고작 며칠이었다. 하지만 몸에서 피가 나오는

31) D. E. Garland, *Mark*, 224.

32) R. A. Culpepper, *Mark*, 172.

33)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186.

34)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163.

상태가 12년 동안 지속된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고립과 배제를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자였다.

회당장 야이로는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적 입지 면에서 혈루증 여인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우세한 존재였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는 혈루증 여인을 먼저 고쳤다. 그 여파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죽음을 맞이했다. 야이로의 딸은 결국 소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선택은 의미심장하고 다분히 의도적이다. 예수는 (방랑 전도자로 활동할 때가 더 많았지만) 회당에서 사역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사역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먼저 챙기는 것이 그에게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예수는 모든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고 모든 필요에 응답하지도 않았다(1:37-38 참조). 만약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지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직행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의 긍휼하심에 좀 더 지분을 줘서 그가 혈루증 여인을 고친다고 가정해 보자. 설령 그렇다 해도 여인의 병은 12년간 지속된 ‘만성’병이었기 때문에,³⁵⁾ 좀 더 위급한 -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있는 -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치고 돌아와서 여인의 병을 고친다 해도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예수는 굳이 혈루증 여인부터 고친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랜 시간을 들여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그녀의 병을 고친다. 그러는 사이 야이로의 딸은 목숨을 잃었다.

예수의 선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을 바꿔 보자. 전기 작가 마가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비교/대조를 끝까지 밀어붙인 뒤 주인공 예수가 내린 뜻밖의 결정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것인가?

첫째, 마가복음 5장의 예수는 약자의 편을 드는 분이다. 약자의 편을 든다는 것은 예수가 눈을 가린 채 무조건 약자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약자란 시스템과 제도로 인해 은혜의 수혜에서 처음부터 배제된 이를 가리킨다. 유대교 율법 시스템에서 혈루증 여인은 예수와 군중들이 있는 곳에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혈루증 여인에게서 치유와 구원의 기회가 원칙적으로 봉쇄되었던 것이다. 예수는 유대교 율법 시스템의 유지자인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보다 유대교 율법 시스템의 희생자인 혈루증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유대교 율법 시스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혈루증 여인의 병을 먼저

35) A. Y. Collins, *Mark*, 280.

고쳐 줌으로써 예수가 약자의 편을 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패턴은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광경에서도 발견된다(막 2:13-17).

둘째,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앞선 비교/대조에서 살펴보았듯이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 면에서 혈루증 여인보다 우세한 존재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특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³⁶⁾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때문에 예수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기도 했다(예, 막 6:1-6). 마가복음 5:21-43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모두 믿음의 모델로 등장한다. 하지만 내러티브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예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굳센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회당장의 모습(“발 아래 엎드리어”)은 존경의 표시였고,³⁷⁾ 그의 고백(“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은 예수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³⁸⁾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군중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험이자 믿음의 행위였고, 그녀의 생각(“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은 예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 준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모두 처음에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이로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반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요지부동이다. 예수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회당장 사람들이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본문에는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직접적 반응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의 발언을 통해 그의 반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πίστευε)는 현재 명령형이다. 현재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나타낸다. 즉 예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³⁹⁾ 물론 본문은 야이로의 직접적 반응을 감추고 있지만, 야이로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애초에 예

36) D. E. Garland, *Mark*, 225.

37) R. A. Guelich, *Mark 1-8:26*, 295.

38)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106.

39) M. E. Boring, *Mark*, 161.

수가 이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반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시종 일관 굳건하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또한 예수는 병이 낫게 된 것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후에 확인해 준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모두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보다 성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가 야이로의 문제보다 혈루증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것이 납득된다. 병 고침의 순서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인간의 지위와 특권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4. 나가는 말

본 논문은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해 마가복음 5장을 새롭게 해석했다. 모든 해석은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본 논문은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의 관점을 반영해 마가복음 5장의 의미를 추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두 가지 전기의 장르적 특성은 (1) 주인공 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2) 비교/대조이다.

거라사 광인 이야기(5:1-20)에서 마가는 주인공 예수의 두 가지 모습을 부각시킨다. 예수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자로서 거라사 광인을 귀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다. 더불어 그는 하나님과 동등시될 정도로 신적 권위를 소유한 분이다. 또한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예수와 로마 제국을 함축적으로 비교/대조한다. 평화를 선전하는 로마 제국과 가이사는 실상 피지배인들을 압제하는 주체이고, 예수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수여할 수 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5:21-43)에서 비교/대조는 훨씬 더 명시적이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우세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혈루증 여인을 먼저 고친다. 이를 통해 예수는 두 가지를 가르친다. 첫째, 예수는 약자의 편을 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주제어>(Keywords)

복음서 장르, 그레코-로만 전기, 기독교론, 마가복음 5장, 믿음.

Gospel Genre, Greco-Roman Biography, Christology, Mark 5, Faith.

(투고 일자: 2021년 7월 25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마가복음 1:16-20절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9 (2020), 46-76.
-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마가복음 2:1-3:6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4 (2020), 201-230.
- 권영주, “복음서의 상이성은 왜 나타나는가? - 고대전기 작가들의 작법 분석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7 (2018), 455-490.
- 박노식, “마가복음의 그리스 비극적 요소 - 합창의 신분과 기능”, 『신약논단』 18 (2011), 667-716.
- 박노식, “복음서와 드라마 - 마가복음의 비극적 요소들”, 『신약논단』 14 (2007), 265-300.
- 박노식, “The Gospel of Mark as Christian Biographical Tragedy”, 『신약연구』 11:2 (2012), 1-29.
- 박윤만, 『마가복음: 길 위의 예수, 그가 전한 복음』, 용인: 킹덤북스, 2017.
- 스트라우스, M. L.,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 정옥배 역, 서울: 디모데, 2016.
- 포웰, M. L., 『현대인을 위한 신약개론: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읽기』, 이승호 역, 서울: CLC, 2014.
- 허타도, L. W., 『마가복음』, 이여진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20.
- Black, C. C., *Mark*, ANTC, Nashville: Abingdon Press, 2011.
- Bock, D., *Mark*, N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Bond, H. K., *The First Biography of Jesus: Genre and Meaning in Mark'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20.
- Boring, M. E., *Mark: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2.
- Bryan, C., *A Preface to Ma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Burridge, R. A.,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25th Anniversary ed.,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8.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rk*,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 Culpepper, R. A., *Mark*,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7.
- Donahue, J. R., *The Gospel of Mark*, SP 2,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2.
- Dunn, J. D. G., *Jesus Rememb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Fitzgerald, J., “The Ancient Lives of Aristotle and the Modern Debate about the

- Genre of the Gospels”, *ResQ* 36 (1994), 209-221.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Frickenschmidt, D., *Evangelium Als Biographie: Die Vier Evangelien Im Rahmen Antiker Erzählkunst*, TANZ 22, Tübingen: Francke, 1997.
- Garland, D. E.,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Guelich, R. A.,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1989.
- Hengel, M., “Eye-Witness Memory and the Writing of the Gospels: Form Criticism, Community Tradi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Authors”, Markus Bockmuehl and Donald A. Hagner, eds., *The Written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70-96.
- Hooker, M. D.,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1991.
- Keener, C. S., “Assumptions in Historical-Jesus Research: Using Ancient Biographies and Disciples’ Traditioning as a Control”, *JSHJ* 9 (2011), 26-58.
- Keener, C. S., “Reading the Gospels as Biographies of a Sage”, *BurH* 47 (2011), 59-66.
- Keener, C. S.,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Vol. 1, 2 Vols., Peabody: Hendrickson, 2010.
- Keener, C. S., *The Gospel of Matthew: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 Keener, C. S., *The Historical Jesus of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Kwon, Y., “Charting the (Un)Charted: Gospels as Ancient Biographies and Their (Un)Explored Implications”, Craig S. Keener and Edward T. Wright, eds., *Biographies and Jesus: What Does It Mean for the Gospels to Be Biographies?*, Lexington: Emeth, 2016, 59-76.
- Malina B. J. and Rohrbaugh, R. L.,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2nd ed., Minneapolis: Fortress, 2008.
- Marcus, J.,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 New York: Doubleday, 2000.
- Miller, S., “Women Characters in Mark’s Gospel”, Christopher W. Skinner, Matthew Ryan Hauge, and Mark Goodacre, eds., *Character Studies and the Gospel of Mark*, LNTS 483, New York: Bloomsbury, 2014, 174-193.
- Moloney, F. J.,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Stanton, G. N., *The Gospels and Jesu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Tan, K. H., *Mark*, NCCS, Eugene: Cascade Books, 2015.

Theissen, G., *The Miracle Stories of the Early Christian Tradition*, Minneapolis: Fortress, 1983.

Williams, J. F., *Other Followers of Jesus: Minor Characters as Major Figures in Mark's Gospel*, JSNTSup 102, Sheffield: JSOT Press, 1994.

Witherington, B.,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1.

Ytterbrink, M., *The Third Gospel for the First Time: Luke within the Context of Ancient Biography*, Lund: Lund University – Centrum för teologi och religionsvetenskap, 2004.

<Abstract>

**Interpreting the Gospels in Light of
Genre Characteristics of Greco-Roman Biography:
A Fresh Reading of Mark 5**

Youngju Kwo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is article reinterprets Mark 5 in light of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Greco-Roman biography. Every interpretation is performed with a specific perspective, and this article aims to extract meaning of Mark 5 from the perspective of Greco-Roman biography. The two genre characteristics to which this article gives special attention are (1) the extensive focus on the protagonist and (2) comparison/contrast.

In the episode of a man with evil spirits in the region of the Gerasenes (5:1-20), Mark accentuates two qualities of Jesus, the protagonist of the Gospel as a Greco-Roman biography. First, Jesus is described as the one who can bind Satan and thus release the man from the oppression of evil spirits. Second, Jesus is depicted as the one who has the same authority with God. In terms of comparison/contrast, the episode contrasts Jesus who is a real bringer of peace with Caesar who merely purports to bring peace. The Roman Empire and its emperor, which are not shy about giving massive propaganda for peace, actually turn out to be the oppressor of a subjugated people. By contrast,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can grant the real peace to his people.

In the episode of Jairus and the woman with hemorrhage (5:21-43), comparison/contrast is more explicit than in the previous episode. In this episode, Jairus is more supreme than the woman in many respects: socially, economically, and religiously. In terms of social standing, Jairus who is a named man and a synagogue ruler must have enjoyed more privileges in comparison to the unnamed woman. Economically speaking, the text says that the woman with hemorrhage “had spent all she had” while we can assume that Jairus must have had more secure position in terms of financial status. In the realm of religion, Jairus is respected by people, whereas the woman is despised by people due to her illness. Despite of this, Jesus heals the woman before healing Jairus’

daughter. This teaches two things. First, Jesus takes side with the weak rather than the strong. Secon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one needs in getting God's grace is faith.